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공감뉴스 전북을 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위발위로 1614(상림동 60)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2월 3일(월) 제 3026호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설맞이 캠페인 지난달 27일 전주고속버스터미널과 전주역에서 귀성객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명이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염원 홍보활동을 벌였다. <사진=전북도>

도, 출연기관 '혁신'...성과 중심 경영 도입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장과 올해 경영성과계약 체결
14개 출연기관장 총 166건 경영성과 목표 설정
전년대비 도전적 목표 설정 결과지표 중심 개선
국가·도내 공공기관과 협업 목표 전년대비 상향**

전북자치도는 도 산하 14개 출연기관장과 2025년 경영 성과 계약을 맺고 철저한 성과 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4개 출연기관장이 기관별 경영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계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전북개발공사·자동차융합기술원은 기관장이 신규 임명된 뒤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올해 14개 출연기관장의 경영성과 목표 수는 총 166건으로, 전년대비 도전적으로 목표를 수립해 기관 경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투입 지표 중심의 성과목표를 결과 지표 중심으로 개선했으며 전 기관 공

통지표인 '국가 및 도내 공공기관과의 협업' 목표를 전년도에 비해 상향 조정하고 예산 확보·프로그램 만족도 등 협업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했다. 기관별 주요 경영성과 목표로는 전북연구원의 경우 전북도의 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 발전을 견인할 메가비전사업 20건과 도 발전을 가시화할 수 있는 국가예산사업 29건을 발굴할 계획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사업 75건 발굴과 동시에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신규사업을 50억 원 수주하기로 했다. 도경제통상진흥원은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액을 전년 대비 243만 달러 증가한 4천764만 달러로 목표했으며, 예코융합섬유 연구원은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

규 국가·공모사업을 전년 목표 대비 13% 증가한 135억 규모로 수주할 계획이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신용보증을 전년 목표 대비 3천879억 원 증가한 1조2천억 지원하기로 했으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역 농생명 식품산업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원기업의 매출을 15.5%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군산의료원은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 의료·돌봄 협력사업을 전년 대비 1천명 증가한 3천명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남원의료원은 공동간병을 통한 보호자 없는 안심병원 병상을 전년 대비 60% 증가한 40개 운영에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경영평가 시, 성과 목표 달성여부를 함께 평가해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연임 여부, 기관장 성과급 지급(0~120%)에 활용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 기자

전북형 복지정책 대폭 강화... '더 두터워진 복지 안전망'

**전북형 긴급복지지원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신규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더 많은 가구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민 생활 안정 정책 지속적 확대**

전북자치도가 도내 위기가구를 돕기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 한 해도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전북자치도는 긴급복지법 기준에 부적합했던 저소득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지난해 제정한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해 정부 긴급복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을 85%까지 완화해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한다. 예

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87만2천700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다. 재산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처한 도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과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6.42% 상승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생계급여가 195만1천287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만7천원 증가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되고 차량 연식 기준도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돼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예정이다.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기존 연 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 이하에서 각각 1억3천만원, 12억 이하로 변경됐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 또한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기초수급 대상자 확대와 생활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전북특별자치시대, 핵심 SOC 구축으로 새 도약 준비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수요자 중심 교통체계 구축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은 올 해 핵심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은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의 비전과 실행 전략을 담아 5대 분야 6개 추진 전략 및 3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전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지역개발사업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과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SOC 사업의 조기 추진을 통해 도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확충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성

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연결도로, 광역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도내 교통혼잡 해소와 접근성을 개선한다. 전북자치도는 또한 도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교통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행복콜 서비스 확대, 교통약자 이동 지원, 미래 모빌리티 혁신, 버스체계(BRT)와 하이퍼 튜브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도심 내 이동서비스를 다양화한다. 전북자치도는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한다. 공공임대주택 공

급과 빈집 정비 사업, 주거비 지원 확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녹색 건축과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공디자인 사업,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도는 도민 중심 혁신적 토지행정으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도민 생활 편의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 재조사사업을 확대하고 공간정보 구축을 통해 지적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제인 새만금 국제공항과 고속도로·철도망 확충 등 핵심 SOC사업을 통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전북을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 정착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JBT
전북의 겨울을 품다, 전북타임스!
당신의 하루를 여는 신뢰의 뉴스, 전북타임스는 전북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9603

전북도, SW 강사 본격 양성...정보 격차 해소

SW 강사 양성 통해 도내 교육 격차 해소 미래인재 양성...11일까지 교육생 40명 모집

전북자치도와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소프트웨어(SW) 미래채용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SW 강사 양성 교육생' 40명을 모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미취업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정보 소외지역에 양질의 SW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미래 디지털 교육의 주축이 될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도내 거주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SW 분야 전문 퇴직자 등은 우선 선발 대상으로 지원 자격을 갖춘다.

도와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서류 검

토 등을 통해 오는 14일까지 최종 교육생을 선발한다.

교육생들은 ▲전북 SW미래채용센터와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오는 1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총 1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은 최신 SW 기술과 실습 중심으로 구성돼 ▲블록코딩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의 이론과 실습을 다룬다. 또한 초·중·고 학생 대상의 교수법, 교안 제작 등의 실무 과정을 포함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생들은 과정을 마친 뒤 최종 평가를 통해 약 30명 내외의 전문 강사로 채

용되며 채용된 강사들은 3월부터 12월 까지 도내 정보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SW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이외에도 ▲콘텐츠 개발 ▲교안 제작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통해 전문 강사로서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얻게 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2023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시행한 SW 미래채용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98억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121명의 강사를 양성하고 1만5천950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김재현 도 디지털산업과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 SW 교육의 기반

을 다지고, 도내 정보 소외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선발된 강사들이 디지털 교육 혁신을 주도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SW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정보 소외지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디지털융합센터 홈페이지(jdc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참여기관인 플레이코딩(유)041-414-0544를 통해 가능하다.

/정혜민 기자

도, 축산물 위생검사 수행 공수의 6명 위촉 "공수의 자체 위촉 전국 최초...축산업계 신뢰도 높일 것"

전북자치도는 축산물 위생 검사 등을 수행할 공수의(도축검사관) 6명을 위촉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그간 기초자치단체(시장·군수)가 공수의를 위촉했으나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공수의 위촉 권한이 도 지사로 넘어왔다.

전문 도축검사관 교육을 이수한 공수의들은 도내 3개 도축장에 배치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도축장 축산물 위생 점검, 생체 검사, 도축 후 부위별 축산물 위생 검사

등을 맡는다.

공수의 위촉에 따라 축산물 도축 검사와 축산물 위생 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수의직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도 경감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광역지자체가 공수의를 자체 위촉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며 "도민에게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제공해서 축산업계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속도낸다

무주군·순창군, 국토부 공모 사업 선정·연말까지 도내 14개 시군 안전망 구축해 긴급 대응 체계 강화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의 '2025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 사업' 공모에서 무주군과 순창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스마트 도시안전망은 전주, 군산 등 10개 시·군에서 이미 구축을 완료했으며, 진안과 장수는 올해 7월, 무주

와 순창은 올해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내 14개 시·군에 걸쳐 스마트 도시안전망이 완성돼 도민 안전과 긴급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선정으로 무주군과 순창군은 각각 국비 2억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2억원을 추가 투입해 올해 말까지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범죄, 화재, 재난 등 각종 긴급 상

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스마트 도시안전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영상 정보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112 출동 및 현장 영상 지원 ▲119 긴급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 ▲재난 상황 시 현장영상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 및 재난 대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도내 어디서든 사건·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로 인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염영선 도의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마련



염영선 도의원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도의원(정읍2)이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빠른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조례 개정안에 나섰다.

염 의원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전북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법령 또는 다

른 조례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외국인도 도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 혜택과 생활편의 제공 행정서비스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염 의원은 "전북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 외국인의 자립과 적응, 편의 향상이 더욱 증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의 개정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3년 말 현재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남자 3만7천135명, 여자 3만6천667명 등 모두 7만3천802명에 이른다.

/김관 기자

김희수 도의원, 문화정책 입안·집행 등 다양한 문화주체 참여 근거 마련



김희수 도의원

전북자치도의회 김희수 도의원, 문화정책 입안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북자치도 문화정책 입안 및 집행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전북자치도 문화정책은 도 문화정책 담당부서와 출연기관인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입안되고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포럼이나 각종 위원회 등의 방식을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계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만 간접적이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이번 김희수 의원이 발의한 문화자치 조례안이 시행되면 문화 활동을 기획하

고 추진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 입안단계부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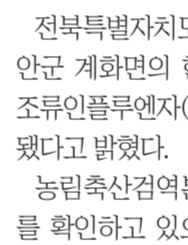
김 의원은 "문화관광재단이 일종의 중간 조직으로서 행정과 지역예술계를 매개하고 있지만 문화행정에 대한 민간 문화주체의 참여도는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이 조례안 발의 배경이다"며 "원탁회의의 구성 및 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계 역할을 일방적인 정책 수요자에서 생산자 역할로까지 확대하고 문화행정의 품격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개최하는 도의회 41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관 기자

부안군,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



부안군 대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오전 부안군 계화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고병원성으로 나타나면 전국 31번째가 된다.

전북자치도는 해당 농장으로 초동대응팀을 보내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예방적 살

처분도 진행한다.

아울러 AI 예방 및 확산 방지 차원에서 도내 전체 오리농장과 사료 공장, 도축장 등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가는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와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인상수 기자

박용근 도의원, '30억 사업 강요 의혹' 윤리자문위 회부



박용근 도의원

전북자치도의회 박용근 도의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자문위)가 박용근 도의원의 '30억대 사업 강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도의회는 지난달 31일 "박 도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

하고자 윤리자문위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자문위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기구로 7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지방위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윤리자문위가 심의할 의혹은 박 도의원이 지난달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예산 30억여원이 들어가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으나 박 도의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 각종 자료 요구 등 여러 불이익을 운운했다는 게 도청 공무원들

의 전언이다.

도의회는 박 도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체 조사를 했으나 공무원들의 의미 있는 진술을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희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군산3)은 "언론 보도, 공무원노조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이 불거지고 확산했는데 정작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분들은 적

절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피해 당사자들이 도의회에 직접 진술하길 주저하는 것 같아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자문위를 소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 당사자들이 박 도의원의 동료 의원들이 속한 도의회 조사에는 소극적이지만 윤리자문위 조사에는 더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리자문위는 이르면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윤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박 도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관 기자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전북타임스 http://www.jeonbuktimes.co.kr

어르신 안전을 지키는 도로횡단 5원칙

- 1. 찾기**
횡단보도를 찾고
- 2. 서기**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멈추고
- 3. 보기**
좌우를 살피고
- 4. 대기**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 5. 걷기**
천천히 건너고

전주시, 중소기업 도약·민생경제 회복 '집중'

시, 경영안정 지원·제조기업 고도화·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위기 극복 위한 3대 목표 제시

전주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경영안정 지원 ▲제조기업 고도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시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벤처 혁신 펀드운영 등 금융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업당 최대 3억 원 이내의 이자 차액을 3.5%까지 지원하고, 총 263억 규모의 중

소·벤처·창업기업의 성장주기별 맞춤형 펀드를 신설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에 이어 시 공무원들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기업 전담 매니저'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지난해 총 296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중소기업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군별 기업지원 시책 홍보 및 실시간 기업 애로사항 접수가 가능토록 하는 등 기업 애로 해소에 더욱 신속하게 다가갈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기술사 임차료 지원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전주형 고용안정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북형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인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제조기업의 생산공정 자동

화와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과 같은 지능형 공장 도입에서부터 공간 배치와 설비 관리, 노동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제조기업 혁신을 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6월 중소기업 13개사를 선정해 기업별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11개사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끝으로 시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바이전주 우수업체 브랜드 육성 및 마케팅 지원 ▲여성기업 육성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시는 최근 지속되는 고환율로 인한 수입·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무역보험·보증 가입비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수출보험료 가입률을 높여주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지난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동남아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는 등 수출 상담회를 개최해

전주지역 수출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해외 유력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해외지사화 구축 지원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전주형 수출바우처 등 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시는 ▲바이전주 우수업체 브랜드 육성 및 마케팅 지원 ▲여성기업 육성 마케팅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각오다.

인속회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경기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인분들과 지속적인 교류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 가능한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정원문화센터, 정원식물 세밀화 전시

2월 첫 번째 전시회, 28일까지 무료 관람 가능

전주정원문화센터가 자연 치유와 휴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정원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전주정원문화센터에서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정원문화를 더욱 가까이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정원식물 세밀화 전시회'를 진행한다

전시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관람객들이 자연과 정원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시회를 통해 참여자들에게는 정원에 대한 애정을 담은 작품을 선보이며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와 함께 건전한 정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양봉업자 살해 혐의 70대 피의자 유치장서 자해 시도

음료수병에 담긴 농약 마신 듯, 생명에는 지장 없어...경찰 관리 미흡 도마 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70대 피의자가 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피의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의 유치인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징역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치관리 업무를 맡은 경찰관은 유치장에 안색이 변한 채 쓰러져있던 A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A씨는 숙곳에 저독성 농약을 담은 100

ml 음료수병을 숨겨뒀다가 이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전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양봉업자인 7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됐다.

당시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경찰은 범의 개연성을 확인하고

병력을 총동원해 사를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그러나 긴급체포 하루 만에 유치장 안에서 음독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유치인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청 훈령인 유치인 호송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맡아 보관해야 하고 자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독극물이 든 용기가 유치장 내로 반입된 점으로 미뤄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치장 내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독극물을 음용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며 "규정 미준수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에게 대한 감찰 조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음=김정민 기자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출시 3주년 기념 이벤트 전개

소비자 대상 감사 및 기념 할인쿠폰 발행·우수 가맹점 선발대회·신규 가맹점 특별 프로모션 진행

전주시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이 오는 28일 출시 3주년을 앞두고 소비자와 가맹점을 위한 다양한 기념 이벤트를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 3주년 기념 이벤트는 소비자와 가맹점 대상으로 각각 2가지 항목으로 진행되며, 전주시민 및 전주시 가맹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이달 한 달 동안 기존 월요일마다 적용되던 주간 할인(2000원)과 더불어 총 1200장의 '3주년 감사 할인쿠폰(3000원)'이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 쿠폰은 이달 중 매주 수요일(5일, 12일, 19일, 26일) 오전 10시 각각 300장씩 발급되며, 선착순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쿠폰은 다운로드한 시점부터 2주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또한 전주맛배달의 세 번째 생일인 오는 28일에는 고객 1000명에게 '3주년 기념 할인쿠폰(5000원)'을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가 펼쳐진다.

해당 쿠폰은 당일 오전 10시 선착순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내달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맛배달은 기존 전주맛배달 가입 운영 가맹점 중 매출 상위 가맹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우수 가맹점 선발대회'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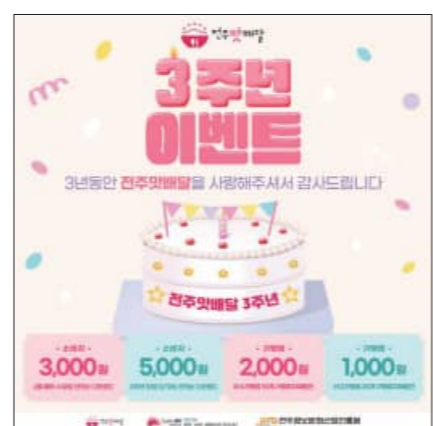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이달 한 달 동안 매출 상위 30위 안에 든 가맹점 중 추첨을 통해 10곳을 선정해 우수가맹점 전용 '2000원 할인권'이 지원된다. 이 할인권은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행되며, 가맹점당 50장씩 총 10곳에 제공된다. 소비자는 결제 시 선착순으로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신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전주맛배달은 이달 내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앱에 노출까지 완료한 선착순 20곳의 가맹점에 전용 '1000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이 할인권은 신규 가맹점의 첫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되며, 가맹점당 100장씩 총 20곳에 제공된다. 해당 할인권 역시 결제 시 선착순으로 적용된다.

한편 전주맛배달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에게는 전주사랑상품권 결제 시 10% 캐시백과 다양한 이벤트 및 쿠폰 혜택을 제공하는 전주시 공



공배달앱으로, 지난 2022년 2월 출시됐다. 전주맛배달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맛배달 공식 블로그(blog.naver.com/jj_ord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지역 2,300명 아동, 디딤씨앗통장 혜택 받는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대상 확대 추진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아동 자산 형성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돼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올해 1월부터 아동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 및 보호 대상 아동에서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해 추진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 진출의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받거나 본인(보호자)이 직접 적립금을 통장에 입금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월 1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이 자산은 18세 이후 아동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으로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 전주지역 약 2300명의 아동

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포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아동복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소연 전주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취약 아동이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어려움을 완화해주는 디딤통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주시는 새해에도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주거공간 정리수납 봉사자 양성' 교육생 모집

전주시는 오는 11일까지 '2025년 제1회 주거공간 정리수납 봉사자 양성 교육'의 교육생 20명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정리수납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공간 정리수납 봉사단 시범운영' 봉사자 양성의 일환으로 정리수납 전문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봉사에 관심 있고 정리수납 봉사단 가입에 동의하는 전주시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매주 수요일 ▲주방 정리 및 침구 정리수납 ▲옷장고 냉장고 정리 등 2일간의 이론교육과 봉사활동 현장실습 1일 등 총 3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시, '문화공관장 작당' 상반기 정기대관 공모

전주시는 오는 18일까지 서브컬처 복합문화공간인 '문화공관장 작당' 시설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공모를 접수한다.

전주 남부시장에 위치한 '문화공관장 작당'은 과거 원예공관장 건물을 서브컬처 기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한 공간으로, ▲대규모 행사·전시공간인 '문화팔레트' ▲소규모 전시·행사 및 부대프로그램 공간인 '스페이스 J-D' ▲교육·체험·회의 공간인 '문화교육장' ▲공연 및 버스킹 등 다목적 공간인 '모두의 정원(아외마당)' 등 6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설은 각 공간의 면적별 사용료를 적용해 대관 및 운영된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 정기대관 공모를 통해 우수한 행사 및 전시 공간을 지원해 문화공관장 작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정기대관은 별도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관료 감면지원 대상인 신진 예술작가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주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39세 이하의 작가 또는 단체여야 한다.

정기대관 공간 및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 또는 문화공관장 작당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공관장 작당이 시민들에게 우수한 공연과 행사를 선보이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발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데 문턱 없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교육 수료생들에게는 '정리수납 전문 2급' 자격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며, 전문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은 '주거공간 정리수납 봉사단' 회원이 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웃의 정리 정돈이 필요한 세대를 방문해 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민·관 협력으로 복잡한 주거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박차'

익산·고창·남원 등 기존 산단 중심 39만 평 특구 지정 목표...8개 기업, 3천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특구 지정 시 기업 파격적 혜택 부여...지정 완료 시 작년 88만평 포함 총 127만평 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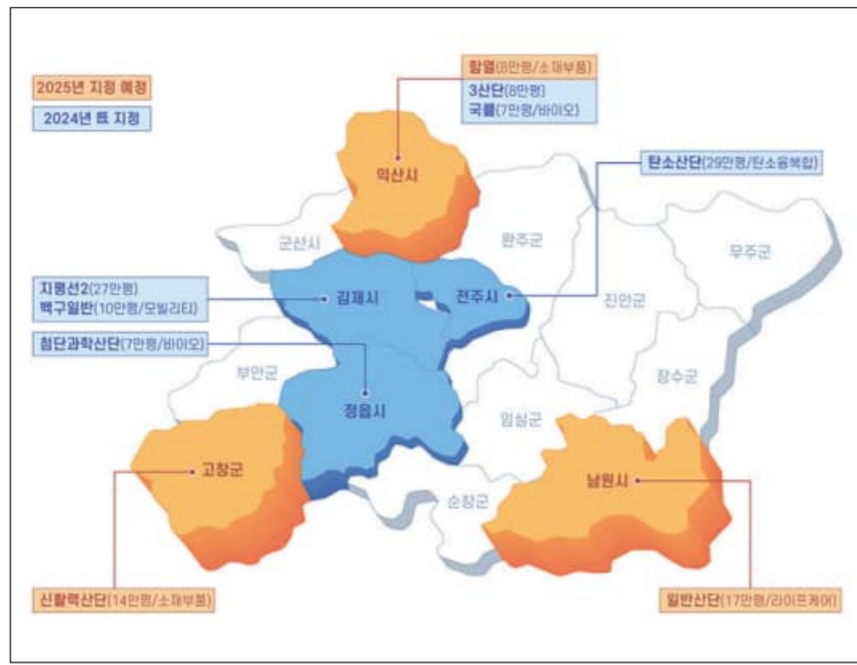
전북자치도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회발전 특구 추가 지정에 나선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해 신청하는 제도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북자치도는 소재부품(익산·남원)과 라이프케어(고창) 분야에 걸쳐 총 39만 평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목표를 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모빌리티, 탄소융복합 등 3대 산업 88만평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은 바 있다.

이번 특구 지정을 위해 도는 지난해 7월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했다. 9월부터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3개 시(익산·남원·고창), 2대 산업(소재부품·라이프케어), 39만 평 규모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 대상 산업단지는 익산 합열



전북도가 익산, 남원, 고창 3개 시 총 39만 평 규모의 지구를 소재부품 및 라이프케어 산업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나선다.

농공단지(8만 평), 남원 일반산단(17만 평), 라이프케어 분야는 고창 신원산단(14만 평)이다.

익산과 남원 산업단지는 각각 2019년,

2021년에 준공됐으나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해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해당 산업단지

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앞두고 8개 기업과 총 3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법인세 및 취득·재산세 등 세제 혜택,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5% 추가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추가 지정이 완료되면 지난해 지정된 88만 평을 포함해 총 127만 평이 기회발전특구로 운영된다. 지정 한도인 200만 평까지는 73만 평이 남아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기업 유치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자리매김할 이번 특구 지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전북에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기업 유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실질적 보장성 강화 강력범죄 상해 보장 신설...개물림 사고 보장 확대



로 인해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이 확대됐다.

반대로, 최근 3년간 지급실적이 없던 보장항목(6종)과 강력범죄상해 보장항목 추가로 인한 중증항목(4종)이 제외되고, 일부 보장항목의 보장 금액이 상·하향 조정됐다.

이는 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실질적인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선된 보장항목은 ▲자녀 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강력범죄 상해 ▲화상수술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이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각 보장항목과 보장 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살인과 폭행, 강간, 강도 등의 강력범죄로 인한 사망 및 1개월을 초과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발생 시 1500만 원을 보상해주는 신규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기존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 받은 경우로 제한하던 개물림사고 진료비도 개물림 및 개부딪힘 사고

/김영태 기자

전북도, 중기부 공모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선정 '쾌거'

원광대, 호남권 재도전 성공패키지 주관기관 선정...연 20억 확보, 재창업자 성장 촉진 프로그램 운영

전북자치도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에 원광대학교가 호남권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날 31일 밝혔다.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가나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패 원인 분석, 문제해결형 교육, 사업화 자금 지원,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정부의 핵심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재창업자들에게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사업에서는 전국 6개 권역별 주관기관이 선정됐으며 원광대학교는 호남권(전북, 전남, 제주)을 담당한다. 원광대 창업지원단은 지난 2022년

에 선정된 이후 3년(2년+1년)동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재창업자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는 이번 공모 선정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공모 대응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펼쳤다.

원광대는 전북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와의 파트너

십을 통해 호남권 창업 협의회 18개와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연간 약 20억의 사업비를 확보, 재창업자의 사업화 지원, 투자 유치(IR), 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비는 창업진흥원의 사업비 공모 이후 확정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자치도, 착한가격업소 489개소로 확대...도민 경제부담 완화

전년대비 75개소 확대 추진, 지원금 85만원→110만원 증액...시군 연계 이용공간 지정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북자치도가 지역 물가안정과 도민의 경제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414개소에서 올해 489개소로 확대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

지정 업소는 현관 제작 및 제공, 영업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카드 수수료 할인 혜택과 더불어 네이버, 카카오맵, 티맵 등 위치 정보 플랫폼에서 홍보를 지원받는다.

전북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기존 85만 원이던 지원금을 11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비와 도비를 확보했으며, 업소 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업소 지정은 시장·군수가 분기별 공고를 통해 진행하며,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 중에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은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의 적정성, 위생·청결 상태 등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총 414개소로 ▲외식업 332개 ▲미용업 61개 ▲숙박업 8개 ▲목욕업 등 기타 13개 업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균 이용

가격은 1만464원이다.

전북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의 참여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시군별로 매월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을 지정해 시군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구내식당 휴무일에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지정 업소를 지속적으로 늘리며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한편, 착한가격업소 정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goodprice.go.kr)과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응급처치강사봉사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응급처치강사봉사회(회장 이병희)가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써달라며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응급처치강사봉사회 이병희 회장은 "강사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모금에 참

여했으며,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법을 널리 보급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봉사회는 작년 한 해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11,740명의 안전교육 수료자를 배출했다. /최준호 기자

한전 전북 연원섭 본부장, 올림픽 전북 유치 챌린지 동참



한국전력 전북본부 연원섭 본부장은 지난날 31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기원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

'GBCH(Go Beyond, Create Harmony) 챌린지'는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를 뜻하는 것으로, 새로운 화합과 연대의 가치를 통해 지역과 함께 발전

하는 올림픽 유치에 대한 도민의 염원을 담고 있다.

전북농협 이정환 총괄본부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연원섭 본부장은 "한전에서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해 무결점 전력 공급에 힘쓰겠다"며 "전북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모든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연원섭 본부장은 챌린지 다음 주자로 챌린지는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를 뜻하는 것으로, 새로운 화합과 연대의 가치를 통해 지역과 함께 발전

/최준호 기자

전주시, 종합 창업지원사업 '여성재도전사관학교' 참여자 모집

10명 모집...창업 아이디어 실현 1:1 멘토링 및 창업 교육·사업화 자금 등 맞춤형 지원 예정

전주시가 창업을 꿈꾸는 여성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기로 했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주시 거주 여성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준비 단계부터 판로 개척까지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 여성재도전사관학교' 창업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여성재도전사관학교' 창업지원사업은 어려운 취업 환경 속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했거나, 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여성의 재도전을 응원해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등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다.

시는 올해 생활소비재·수공예품·지역특화 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주지역 여성 예비 창업자 10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사업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업 타당성 검토, 마케팅, 판로개척 등 창업에 필요한 맞춤형 멘토링이 제공된다.

또한 △초기 사업계획 수립 △창업교육 및 컨설팅 △시장진입 및 마케팅 지원까지 체계적인 창업 지원서비스도 제

공되며, 선배 창업자와의 네트워킹 기회도 마련돼 실질적인 창업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다.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담당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전주시 거주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누리집(www.jjwoman.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jjcenter@naver.com)으로 접수하거나, 센터에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2-23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여성재도전사관학교'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10명의 여성 예비(기) 창업자에게 수공예와 디저트,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기회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 멘토링과 온라인 홍보 및 판로 연계 지원 등을 통해 매출 향상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도 기존 참여자들을 위한 사후관리와 함께 신규 참여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여성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박강표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 부임

한국무역협회는 금일 신임 전북지역본부장으로 박강표 전 도교지부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박강표 본부장은 전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박강표 본부장

국제협력실, 전북지부, 싱가포르지부 등을 거쳐 무역빅데이터실장, 도쿄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박강표 전북본부장은 "대내외 불확실한 무역환경으로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북 기업의 무역 애로 해소를 최우선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청년에게 활력을’.. 청년활력수당지원 참여자 모집

도내 미취업 청년 2천명 대상 월 50만원, 6개월 지원... 진로개발·직무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병행 지원 역할

전북자치도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오늘부터 ‘2025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 완화와 취업 역량 강화를 동시에 지원하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전북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2천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 상당의 포인트

를 지급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이 포인트를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시험 접수비, 면접 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사전 교육을 이수한 후 전용 카드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진로개발 및 직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취·창업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된다. 특히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50만원의 취업 성공금이

추가 지급돼 동기 부여를 극대화한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도내 거주 중인 18~39세 미취업 청년으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선발 인원은 총 2천명으로 시군별 인원으로는 전주 884명, 군산 292명, 익산 320명, 정읍 94명, 남원 66명, 김제 72명, 완주 112명, 진안 16명, 무주 18명, 장수 14명, 임실 18명, 순창 20명, 고창 38명, 부안 36명이다. 신청은 오늘부터 28일 17시까지 전북 청년활력수당 공식 홈페이지(jbyouth.ezwe.com)를 통해 가능하다. 심사는 소득수준, 미취업 기간, 거주기간에 대한 정량 평가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시군별 심사를 통해 3월 말 문자 발송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도청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혜민 기자



전북대, 제5대 공무원노조 지부장 선출

학생지원과 팀장 송완상 직원 선출... 찬반 투표 97% 압도적 찬성

전북대학교 제5대 공무원노동조합을 이끌 신임 지부장에 송완상 직원(학생지원과 팀장)이 선출됐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3일 단독 후보로 입후보한 송완상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 97.83%의 압도적 찬성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완상 신임 지부장은 오는 3월 1일부터 2년간 전북대 공무원노동조합을 이끌게 됐으며, 전북대 직원 전체를 대표하는 직원협의회장도 겸직하게 된다. 송 신임 지부장과 함께 정책을 펴 나갈 부지부장은 김창곤 직원(시설과)이 함께 한다. 송 신임 지부장은 내년에 치러질 총장 선거에서 직원의 역할과 권리를 증대하고, 직원 복지 확대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개선, 수평적 조직 문화 정착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총장 선거에서 직원 투표 비율을 향상시켜 대학 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제도를 통한 건강 검진비 신설과 직원 전용 휴식 공간 마련 등의 실질적 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전북에듀페이’지원·교육공무직원 급여 지급방법 및 인사기록 관리 개선·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ESG 융합 사례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달 23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제12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유정기)를 개최해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발했다. 선발된 우수사례는 ▲전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모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교육비인 ‘전북에듀페이’

이·지원 사례(최우수) ▲교육공무직원 급여 지급방법 및 인사기록 관리 개선으로 학교 업무경감을 추진한 사례(우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ESG를 융합하여 탄소중립 교육 윤리경영 강화 및 예산 절감한 사례(장려) ▲교원인용시험 응시예정자의 이해 제고와 불안 요소 최소화를 위한 사전 설명회 개최 사례(장려) ▲집라인 인명구조시스템

발명으로 안전사고 예방 사례(장려)이다. 전북교육청은 우수사례 공무원에게 교육감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최우수·우수사례는 교육부의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 적극행

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하반기 연속 우수사례로 선발됐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북교육청 소속 각 기관 및 학교에서 제출한 13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담당자의 적극성, 수요자 체감도, 과제의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의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미래학교 교육전문직원 1차 협의회 개최

기본학력 기반 학력 향상·미래역량 중심 창의적 교육 운영·전문적 학습공동체 중심 수업 실현·AI 코스웨어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달 24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전북미래학교 교육전문직원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전북미래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게 목적이

였다. 2025년 전북미래학교는 유치원 4개, 초등학교 74개, 중학교 36개, 고등학교 32개 등 총 146개가 운영된다. 전북미래학교의 중점과제는 ▲기초·기본학력 기반 학력 향상 ▲미래역량 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중심 수업혁신 실현 ▲에듀테크 및 AI 코스웨어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등이다. 여기에 ▲IB 프로그램 ▲생태전학교 ▲세계시민교육 ▲문예체육 등이 선택 과제로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전북미래학교 운영 내

실화를 위한 현장 중심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학교와 교육공동체가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전주교육대학교, 2024학년도 겨울방학 학력신장캠프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은 겨울방학을 맞아 기초학력 학습지원이 필요한 도내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2일, 22일부터 24일 두 차례에 걸쳐 2박 3일 숙박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겨울방학 학력신장캠프에는 53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주교대 재학생 학습지원튜터 21명이 유대 강화 프로그램을 담당하여 이들의 학력 신장을 돕는다. 프로그램 구성은 크게 ▲현장 교사 초

청 강의(교과목·국·영·수) 프로그램, ▲AI-에듀테크 전문가 초청 강의(AI-에듀테크 기반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전문가 초청 강의(협동심·사회성 강화 프로그램)로 진행된다. 전북교육청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학

력신장캠프는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의 학습 공백 최소화과 학력 신장을 목표로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 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학교, 제11회 ‘미래전북포럼’ 성황리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제11회 미래전북포럼(Future Jeonbuk Forum)을 전주대학교 온누리홀에서 지난달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과 인간의 삶’이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포스코 회장(CEO)을 역임한 SE Global 권오준 대표와 대한해부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형태학 연구 권위자로 알려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인주 교수를 초청하여 명강연을 진행했다. 먼저, SE Global 권오준 대표는 ‘철의 길 여정’이라는 주제로 포스코에서의 경

험을 바탕으로 철강 산업이 걸어온 역사적 발전과 미래비전에 대해 설명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철강 산업의 방향성도 강조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인주 교수는 ‘Gustav Klimt가 그린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오스트리아의 상징주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과 철학을 중심으로 과학과 예술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두 분야의 융합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최성민 기자



전주교대는 겨울방학을 맞아 기초학력 학습지원이 필요한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2일, 22일부터 24일 두 차례에 걸쳐 2박 3일 숙박 캠프를 진행했다

겨울철 난방기기 화재예방법



외출시 난방기기 꼭 끄기



전기제품은 사용하지 않을때는 플러그 뽑아 두기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안전인증을 받은 규격품 사용하기



이불이나 매트리스위에 전기장판을 깔아 두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기



난방기 주위에 인화물질을 두지 않기

익산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익산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2025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12개 사업 총 1,219명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요 사업은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청소년 재활 승마 지원 ▲초등돌봄서비스 학습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임대 ▲노인 맞춤형 운동 ▲시각장애인 안마 이용권 ▲노인 문화 여가 ▲전북청년 농촌치유 프로그램 등이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익산시에 등록된 50여 개의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금액은 월 12~24만 원으로 금액의 일부를 바우처 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서비스에 따라 3개월에서 12개월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군산시가 이번달부터 2025년 상반기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이용권(바우처)을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업이다. 분야는 ▲과잉행동장애(ADHD) 및 주의력 결핍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지원, ▲아동정서 발달지원 ▲노인맞춤형운동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등 16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총 1천 200여 명 모집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사업별로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자 선정은 나이와 소득 기준, 재판정 여부 등 서비스별 기준에 따라 이뤄지며 선정 결과는 이달 말 개별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사회서비스(바우처) 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정월대보름·당산제 10개 마을서 개최

정읍시가 사라져가는 세시풍속을 복원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정월대보름·당산제를 10개 마을에서 개최한다.

지난달 31일 철보 원백암 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북면 원오류 마을에서 마무리 되는 이번 정월대보름·당산제 행사는 달집 태우기, 지신밟기, 당산굿 등 각 마을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마다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며 출향민까지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과 더불어 마을 공동체로서의 자부심과 애郷심을 고취하는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정월대보름·당산제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시청 문화예술과(063-539-5177)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정읍=김정인 기자

2025년 군산시 농가소득보전사업

맞춤형 비료 사업 최대 지원 면적 한도 조정... 지원 불가 상황 발생 우려

군산시가 올해부터 지역 쌀 품질 제고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전격 시행하고 있다. 농가소득 보전 사업의 세부 지원내용은 맞춤형 비료 지원, 육묘용 상토 지원, 농가경영안정 자금 등 다양하다.

농가소득보전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로 군산시민(2024년 기본형공익직불제 등록 기준)이면서 전북특별자치도내 농지 0.1ha 이상 경작자이다.

특히 맞춤형 비료 사업은 최대 지원 면적이 30ha가 한도였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5ha로 조정되었다. 사업 전환 배경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으로 농자재 가격을 보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검토하면서다.

이에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비료를

100% 현물로 지원하는 군산시 입장으로 써는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 지원이 불가할 수 있는 상황 발생이 우려됐고, 이에 사업을 전환할 필요성을 느껴서다.

이외에도 ▲기존 사업 신청 및 현물 수령이 불편하다는 잦은 민원 ▲농가별 선호 농자재 상이로 인해 현금 지급으로의 변경 요청 증가 추세도 사업 전환의 이유로 대두되었다. 이에 군산시는 맞춤형 비료 사업에서 현금 지원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반면 기존 맞춤형 비료 대상 농지 및 포수는 기존과 동일하다. 논타작물을 포함하여 비 재배지에 맞춤형 비료 기준 밀가루 15포, 이삭겨름 7.5포를 1ha 당 총 22.5포 지원하며 맞춤형 비료 외에도 유기질비료, 완효성 비료, 콩비료로 선택해도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상토 지원 사업 역시 비 재배지에 한하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대 지원 면적 5ha 상한으로 정했다. 지원은 1ha 당 경량 40L 기준 30포 내외, 중량 20L 기준 60포 내외이며 희망 농가에 한해서는 상토 대신 현금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맞춤형 비료 및 상토 지원 사업은 이달 중 신청받을 예정이다.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한다.

농가경영안정자금도 맞춤형 비료 및 상토 공급 후 농가소득보전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정해지며, 기존에 면적별로 지급하던 방식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소농, 면적별로 구분하고 쌀 농업 재배 농가에는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정읍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529억 투입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국가공모사업 유치...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예정

정읍시가 정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그린바이오투입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본격 육성한다. 총 529억원을 투입해 미생물과 천연물 중심의 바이오 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먼저 '효능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효능 검증 및 안전성 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10월 준공된 'GMP 기반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과 연계해 기업들이 상품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소재 검증과 대량 공급 기반을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 양돈 농가들 시작으로 내년에는 한우 농가까지 대규모 제품 실증사업을 시행해 상품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준공될 '미생물 산업 공유인프라' 조감도

또한, 올해는 '그린바이오소재 첨단 분석시스템 구축' 국가공모사업을 유치해 자동화·고속화·표준화가 가능한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재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기업의 제품 개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준공될 '공유인프라'를 통해 40개의 기업 입주 공간을 마련, 소재 개발부터 제품화, 실증, 대량생산, 창업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내년부터 자율주행버스 운행한다'

자율주행차량 제작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 사업 돌입... 내년 시범 운행 진행 예정

이르면 내년부터 익산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익산시는 지난달 24일 '익산시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추진 중인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시 관계자와 자율주행 분야 외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용역 추진 상황,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용역 수행기관인 대영유비테크(주)는 ▲자율주행차 운행 및 중앙기 활용계획 ▲자율주행 관제센터



및 도로인프라 구축 설계 ▲재정계획 등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 세부 내용과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 나온 의견은 오늘 있을 최종보고회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자율주행차량을 제작하는 등 본격적인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 사업에 돌입한다. 내년 부터는 시범 운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농특산물, 신규 수출업체 발굴... 미국 시장 공략

어울림(유) '구운 고구마칩'·'데미들레(주)' '티라미슈 크림떡' 농부의 식품공장 '미숫가루' 수출 첫걸음

군산 우수 농식품이 미국 시장 공략에 전격적으로 나섰다.

지난달 23일 군산시는 군산시 농특산물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어울림(유) (대표 장병수) ▲농업회사법인 데미들레(주) ▲농부의 식품공장 이성일 농가가 첫 수출에 나섰다고 밝혔다.

어울림(유)은 구운 고구마 칩과 구운 감자 칩 3,510개(1천5백만 원 상당)를 미국 H-MART 매장에, 데미들레(주)는 티라미슈 크림떡과 데미들레떡(4천만 원 상당)을 UNEXPECTED MEAL 온라인몰에 선보였다.

후속 타자인 이성일 농가의 군산 귀리 미숫가루와 여주 귀리 미숫가루(8백만 원 상당)도 오는 3월 선적 예정이며, 점차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수출 역량 강화 교육, 해외 박람회 참가 통한 설명회, 바이어 연계 수출 상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수출 역량과 가능성을 높였고, 지역업체 역시 꾸준히 지원해 왔다.

작년에는 미국 시장 개척을 목표로 'LA(로스앤젤레스)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의 참가를 지원하며 수출 경험이 없는 기

업 위주로 군산 농특산물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왔다.

이번에 미국 시장 첫 출격에 나선 어울림(유) 구운 고구마칩, 구운 감자칩은 유통 처리 없이 화학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은 건강한 스낵으로 사랑받아 왔다. 또한 티라미슈 크림떡, 데미들레떡, 군산 귀리 미숫가루는 지난해 LA(로스앤젤레스)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에서 조기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얻으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사회적기업 창업팀 모집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 지원

익산시가 사회문제 해결과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한다.

익산시는 '2025년 익산형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할 창업팀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익산형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하는 예비창업자나 5년 이내 초기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와 대면평가 등을 거쳐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하는 예비창업팀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전문



가 맞춤형 컨설팅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교육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www.ikse.or.kr 또는 익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익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063-859-3406)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3미(味)·6품(品)·9경(景)' 새롭게 선정

외부 관광객 유입 촉진·정읍 관광 홍보 효율성 극대화 계획

정읍시가 지역 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해 관광명소와 특산물, 음식을 아우르는 '정읍보물'을 새롭게 선정한다. 이를 통해 외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정읍 관광 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시에 따르면 정읍9경은 2007년 처음 선정된 이후 2016년 3개소를 변경해 재선정된 바 있다. 이후 10년 넘게 유지된 기존의 명소를 재검토하여 하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롭게 조성된 용산호 수변공원, 한국 가요촌 달하, 가칭 드림랜드(순환열차 및 캠핑장) 등의 명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 소재 개발부터 제품화, 실증, 대량생산, 창업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읍보물' 선정은 단순한 명소(景) 발굴을 넘어 특산물(品)과 음식(味)을 결합해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춘 종합적인 자원으로 기획된다. 선정 과정은 시민과 단체, 관광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월 중 후보 명소를 발굴한 후 시민소통방 설문조사를 통해 1차 후보를 선정하고, 시 SNS를 활용한 전국민 선호도 조사로 후보군을 압축한다. 최종적으로 시 관광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미(味)·6품(品)·9경(景)'의 형태로 확정된다.

시는 최종 선정된 보물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영상과 리플릿을 제작하고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과 캠프(정) 등의 명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읍보물' 선정은 단순한 명소(景) 발굴을 넘어 특산물(品)과 음식(味)을 결합해 변화하는 관광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골목상권 활성화

군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 주요 상점가를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시는 지난달 21일 열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3곳을 지정했다.

해당 상점가는 ▲나운상가(신동초등학교 옆 ~ 나운지구대 앞) ▲디오션

시티 G플레이스(조촌동 디오션시티 e편한세상 2차 아파트 앞 건물) ▲동백로 나운상가(나운동 차병원 인근 상가)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에 지정된 세 곳 중 나운상가와 동백로 나운상가 골목형 상점가는 상권이동으로 인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새만금·동부내륙 연결 교통 허브 도약

정읍시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6차 국토·국지도 5개년(2026-2030) 건설계획'에서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

시는 전북연구원(김상업 박사)과 공동에 공평동과 북면을 잇는 국도대체우회도로(국도 22호선) 개설사업(7.1km, 2,130억 원)과 철보와 임실 덕치를 연결하는 국도 30호선 개량사업(20.0km, 1,040억 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돼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공평-북면 간 국도 22호선은 공평동 주천사거리에서 북면 화해교차로 인근 국도 1호선까지 연결돼 정읍시 우회도로 간선축 완성과 시내권을 관통하는 교통량 분산의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로써 교통 혼잡 해소와 함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도 30호선 철보-임실 덕치 구간은

새만금과 내륙 지역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 이 사업은 새만금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동부내륙권의 산·농업 자원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의 성과에는 윤준병 국회의원 의원의 큰 역할이 있었다. 윤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 힘을 실었다.

국도교통부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우선순위에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하반기에 '제6차 국토·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정읍시는 이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경제와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물론 서남권과 동부내륙권을 연결하는 교통 허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부안군,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순항'

주민 소통 강화·지역 문화 활용 사업...8개 마을서 완료 및 진행, 올 연말 마무리 목표

부안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주산면 인천마을에서 첫 발을 댄 이 사업은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주민, 전문가, 행정기관이 협력해 마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현재까지 8개 마을에서 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며 올 연말까지 모든 사업 완료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주산면 덕림리 인천마을은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건강마을'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복지관 신축과 운동시설 설치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마을을 만들어 가는 마을로 거듭났으며 주산면 사산리 농원마을은 '너와 내가 함께해 행복한 농원마을'을 목표로 습지와 공공주차장



부안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우덕·서둔·양지·공안·연곡·효동마을 등 6개 마을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경제와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 주도의 변화와 혁신이 이끌어내고 마을의 자생력을 높이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마을 만들기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핵심 중 하나로 주민의 작은 아이디어가 마을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GBCH 챌린지 동참 올림픽 전북유치 기원 릴레이 참여...“전북, 잠재력 충분”

심덕섭 고창군수가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

GBCH 챌린지(Go Beyond, Create Harmony,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는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작으로 국내 후보 도시 최종 발표 시점인 오는 2월 28일까지 릴레이 지목령과 자유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최영일 순창군수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한 심덕섭 고창군수는 "도민의 뜻 모아! 힘 모아!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은 이

미 1997년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세계태권도대회, 아태마스터스대회 등 '체육 강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해 균형발전의 토대를 쌓는 올림픽, K-문화수도 전북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올림픽, 전북이 중심이 돼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고창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챌린지 동참을 부탁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다음 주자로 조민규 고창군외장과 오철환 고창군체육회장을 지목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예타대상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역 내 도로사업 2개 구간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의 일괄예타대상 조사(이하 일괄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괄예타 대상에 포함된 2개 사업은 ▲국도21호선(백구~공덕) 6차로 확장(5.9km, 1,077억 원) ▲국도21호선(김제 공덕~군산 대야) 6차로 확장(9.5km, 1,488억 원)으로 총 연장 15.4km, 사업비는 2,565억원이다.

시는 정책성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타당성 및 정책성 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보장하고 관련 부처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자료를 구축, 사업의 정책성 검증 및 타당성을 확보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일괄예타에 철저히 대응, 2개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제=윤봉기 기자

고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촉식 개최

고창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고창군의 농업, 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농촌협력분과, 축산분과, 산림분과, 건설분과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돼 운영된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김춘옥 한국농업인단체고창군연합회장, 박용철 한돈협회장, 김영건 산림조합장, 김세형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농어촌사업부장 등 각 분야 전문가 21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이들은 오는 2027년 1월 22일까지 임기를 수행하며, 다양한 농림축산식품 사업과 지역 발전계획 심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위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발전을 위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참여를 당부했다.

고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앞으로도 농업인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농업 및 농촌 정책을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저소득층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나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에게 주거비 부담완화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비 1억3천5십만원으로 약 13세대 대상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중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희망

하는 자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30년 이상 임대)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며, 신청 및 접수는 한 국도주주택공사(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지난달일부터 건축과(540-3269)에 신청 가능하며, 사업 예산범 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저소득 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업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 더 나은 내일을 꿈 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윤봉기 기자

고창군, 지역 청년 네트워크 강화...2백만원 지원

고창군이 지역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25 고창군 청년 네트워크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를 모집한다.

모집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고창군에서 거주하거나 활동(직장·학교) 중인 5인 이상의 청년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다.

동아리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동아리 구성원의 40% 이상이 주민등록상 고창군에 주소록 둔 청년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동아리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지원금은 청년 간 교류 활동, 취·창업 준비, 문화 예술 활동 등 다양한 목적의 동아리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

접수는 고창군 생활경제정책관 3층 청년창업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최종 선발은 동아리 구성원 수, 활동 기간, 사업 계획의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5개 팀이 선정할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도내 전통식품 제조기업 성장 기반 마련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기업 모집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바이오통합산업진흥원이 협력해 추진하는 2025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자치도 내 우수 전통식품 제조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강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은 부안 내 전통식품(전통주 포함)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기업(수산분야 포함)으로 전통식품 제조기업 운영실적 1년 이상인 기업(영업등록증 기준)이며 사업지원은 공동마

케팅 프로모션과 마케팅 활성화 지원 및 제품개발 등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식품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통식품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성장과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사업에 대한 정보는 전북바이오통합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063-210-6595) 또는 홈페이지(www.ji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원 농촌활력과정은 "이번 사업이 부안 우수 전통식품 제조업체를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이다"며 "전통주를 비롯한 다양한 부안의 우수한 전통식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아열대 고소득 '애플망고' 집중 육성

지역농업환경 적합 아열대과수로 선정, 총 사업비 3억원 투입...묘목보은자재 등 지원

고창군이 새로운 아열대 고소득 작목으로 '애플망고'를 집중 육성한다.

지난달 31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역농업환경에 적합한 아열대과수로 '애플망고'를 선정했다. 애플망고는 아열대작목 중 비교적 노동력이 적게 들고,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애플망고 보급을 위해 올해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농가에 묘목과 보은자재 등을 지원한다. 또한 아열대과수에 필수적인 시설하우스와 난방시설도 50% 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앞서 24일에는 국내 열대 과일유통업체인 ㈜올고른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기도 했다.

고창군과 올고른은 지역 애플망고 재배 우수 농가를 선발하고, 점포 지원을 통해 고품질 애플망고 품질을 도입해 지역 농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



고창군이 새로운 아열대 고소득 작목으로 '애플망고'를 집중 육성한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역농업환경에 적합한 아열대과수로 '애플망고'를 선정했다.

이다. 현행열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품목으로 애플망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창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농업인들의 부가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2025년 상반기 행복콜 택시 운행 시작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난 1일부터 2025년 상반기 공공형 택시(행복콜 택시)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달 17일까지 2025년 상반기 행복콜 택시 운행자 42명을 새롭게 선정했으며, 만경읍 등 17개 읍·면·동 158개 마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복콜 택시는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40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중교통 불편 마을을 대상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공휴일도 포함)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하는 공공형 택시다.

마을회관으로부터 버스 승강장까지 100원, 읍·면·동행정복지센터까지 1,000원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고, 상반기 운행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7월 31일까지 운행한다.

시는 지난달 23일 시민들의 발이 돼 줄 행복콜 택시 운행자 42명과 상반기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서비스를 강조하며 행복콜 택시 준수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영원을 담은 홍보 스티커를 택시에 부착해서 열심 홍보할 것을 다짐했다.

오형석 교통행정과장은 "행복콜택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교통 불편 지역을 발굴해 운행 지역을 늘려갈 예정"이라며, "교통 불편 지역의 시민들에게 교통편 향상과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복콜은 택시 운행자에게 직접 연락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지역 운행자의 연락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교통행정과(063-540-3283)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제=윤봉기 기자

김제시-중소기업지원유관기업,기업지원시책설명회 열어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관내 중소기업의 지원사업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오는 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시와 더불어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전북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등 도내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이 함께 기관별 지원사업 설명과 기업별 개별 상담 및 정책상담 오픈채팅방이 운영된

다. 시는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등 17개의 기업지원사업 ▲해외시장 개척사업(김제형 통상타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글로벌시장 진출 토털마케팅 지원사업 등 5개의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산중년 취업 지원사업 ▲취업박람회 등 15개의 인력

및 고용지원사업 ▲전입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8개의 인규유입 지원사업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산업·통상 환경변화와 수출 문화 등 경기 침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산·관 협력을 통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윤봉기 기자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군, 道 출생아 67%...독보적 1위

작년 출생아 전년 대비 33.3%↑ 3년 연속 상승...전북 출생 증가율 1위 출산장려·정주여건 개선 효과...청년·가임여성 유입 지속 전망

완주군이 2024년 출생아 수 548명을 기록, 전년(411명) 대비 137명(33.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출생아 증가분(205명)의 약67%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수치로, 2위 익산(57명 증가)의 2.4배에 달한다.

행안부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에 따르면 완주군 출생아수는 지난 2021년에 전년 대비 17%로 감소됐다가, 민선8기 출범 이후 ▲2022년 3.1% 증가(356명) ▲2023년 15.4% 증가(411명) ▲2024년 33.3% 증가(548명)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 출생아 증가율(33.3%)

은 전국·전북 평균(약 3%)의 11배 이상으로, 민선8기 출범 첫해(3.1%)와 비교해도 비약적인 성장세다. 전북도 내에서 3년 연속 전년 대비 출생아가 증가하는 지자체는 완주군이 유일하다.

이러한 수치는 민선8기 완주군의 인구정책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 결혼 축하금 지급, 신도시 중심 정주여건 개선,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이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4년 기준 삼봉·운곡지구 신규 공동주택 입주율이 98%를 돌파하며 젊은 세대의 유입을 견인했고, 삼봉지구

완주군 13개 읍면 중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완주군은 삼봉중 신설, 고운삼봉도서관 건립 등 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테크노 제2산업단지의 분양률이 97.6%(2025년 1월 기준)에 달해 기업 입주가 가속화됨에 따라 청년 인구 유입도 지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가임여성(15~49세)의 지속적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작년말 기준 완주군의 가임여성은 2022년 12월 대비 1,422명(8.7%) 증가한 17,652명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용진읍(88% 증가), 삼례읍(40% 증가)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출생아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서울행 시외버스 노선 붕동교로 변경

7일부터 운행...소재지 교통정체 및 시외버스 이용 활성화 위해

완주군 붕동 생강골시장에서 운행하던 서울행 시외버스가 붕동교로 변경된다.

군은 지난에서 출발해 붕동교(마그네다리)를 거쳐 서울 센트럴시티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을 오는 7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붕동 생강골시장을 경유했지만 소재지 교통정체 및 시외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붕동교 방면으로 변경했다.

노선변경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외버스 운수업체와 수차례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결정했다.

군은 붕동교가 마을버스, 시내외 버스가 연결되는 교통허브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붕동교 인근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을 신설했다.

또한, 무인승차권 발매기 도입으로 승차권 인터넷 예매 및 현장발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붕동~서울 센트럴시티행 시외버스는 1일 2회(왕복) 운행 예정이며, 운행시간은 서울행 붕동 출발 11:10분, 15:15분, 완주행 서울 출발 10:10분, 15:10분이다.

무인 승차권 발매기는 카드환불형(현금결제 불가)으로써, IC카드(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가 가능하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국학기공체조교실 등 맞춤형 한의약 건강프로그램 운영

순창군이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문제 해소에 나선다.

특히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의약 기술을 활용한 예방의료 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건강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실제로, 군은 1월부터 11개 읍면에 거동불편 독거노인 가정방문 대상자 70명을 선정하고, 매월 2회 한의사가 직접 가정방문해 침, 뜸, 파스 등으로 폭 넓은 진료와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체크와 치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에는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뇌 건강을 증진시키는 국학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2월 3일부터 7일까지 성인반(65세 이하)과 실버반(65세 이상) 각 50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63-650-5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미취업 청년 지원...활력수당 참여자 모집

취업 준비 청년 경제적 지원...선정 시 카드 발급으로 6개월간 총 300만원 혜택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오늘부터 지역의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를 위해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은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취업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민선8기 전북도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청년정책 공약으로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올해 남원시는 지역 거주 청년(18~39세) 중 기준중위소득 150%(인구 기준 3,343천원) 이하의 미취업 청년 66명을 모집한다.

2025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북청년' 함께 도전 카드'를 발급받아 매월 교육비, 식비, 교통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지원 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해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매출을 올리면 취·창업 성공금 50만원도 지원받게 된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청년기에 1회만 참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심사과정을 거쳐 오는 3월말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 또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장학숙, 시민 대상 2025년 신규 입학생 모집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남원장학숙에서 2025년 신규 입학생을 모집한다.

선발인원은 35명으로, 남원시 출신의 수도권 소재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입학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자는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상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7일까지이며, 남원시청 교육체육과나 남원 장학숙(02-3462-6064~5)으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www.nam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장학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식당, 도서관, 체력단련실, 세탁실 등 입학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입사등록비 7만원과 매월 15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면 한 학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발효테마파크, 한관광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

순창발효테마파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5년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 및 육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순창군이 가진 독창적이고 풍부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쾌거로 평가된다.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 및 육성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전문적인 컨설팅과 홍보를 통해 해당 지역을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돕는 한국관광공사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다.

특히, 관광지가 가진 고유한 매력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보존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순창발효테마파크는 한국 전통 문화의 독창적 가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발효문화의 미래적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조성된 테마파크로, 최근 매년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순창발효테마파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 및 육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가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군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함께 2월 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약 9천만 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1년 동안 순창발효테마파크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와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여행사와 연계한 맞춤형 여행상품과 관광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농경지 토양검정·비료사용처방 무료 지원



순창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작물 재배 전 농경지 토양검정과 비료사용처방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토양검정은 토양의 양분 상태 과학적으로 분석해 양분 결핍과 과잉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합한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으로, 작물 재배 전 또는 수확 직후에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토양 분석항목은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K, Ca, Mg), 구산 등 8개 항목으로, 분석이 완료되면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확한 토양검정을 위해서는 퇴비나 화학비료를 사용하기 전 토양 상태에서 약 15cm 깊이의 흙을 510곳에서 균일하게 채취해 약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야 한다.

채취한 시료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1층 종합분석실이나 읍면 토양우체통에 제출하면 23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이 효과적이다.

토양 분석항목은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K, Ca, Mg), 구산 등 8개 항목으로, 분석이 완료되면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확한 토양검정을 위해서는 퇴비나 화학비료를 사용하기 전 토양 상태에서 약 15cm 깊이의 흙을 510곳에서 균일하게 채취해 약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야 한다.

채취한 시료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1층 종합분석실이나 읍면 토양우체통에 제출하면 23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시민 참여 드론스포츠 교육...전문 인재 양성 도모

남원시는 드론의 지면확대를 위해 남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드론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참여형 드론 스포츠 교육'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2개월간 수요조사를 실시해 첨단기술과 스포츠가 결합된 드론스포츠 교육을 통해 드론 전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학생, 일반인, 시니어 연령대를 총 망라해 진행하고 이 수요조사를 토대로 3월에서 8월까지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드론스포츠의 기본적인 이해부터 대회참여를 위한 기술까지 전반적으로 배우며 시민들이 드론을 직접 조종하고 안전하게 비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남원의 시민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드론을 이해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드론을 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남원시가 연중 상시적으로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미니대회 및 각종 드론 스포츠 대회와 연계해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직접 대회에 참여해 교육의 성과를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크리에이터 수업 신설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새해를 맞아 '크리에이터' 수업을 새롭게 개설해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카메라, 조명, 마이크 등 전문적인 영상 촬영 장비와 편집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미디어 활용 능력을 키우고, 창의적이고 주제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전문 장비 사용법 숙지 ▲창의적인 콘텐츠 기획 및 촬영 ▲미디어 영상 제작 ▲유튜브 채널 개설 및 운영 ▲편집 소프트웨어 활용법 등이다.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완주군이 함께 시행하는 국가정책지원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063-262-794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소방서, 신속 대응으로 축사 대형 화재 막아

지난달 27일 오전 4시경, 순창군 적성면 소재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순창소방서의 철저한 소방 점검과 정기적 축사 출동 훈련 덕분에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고 신속히 진압됐다. 자칫 수백 마리의 가축과 축사가 전소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으나 순창소방서의 신속한 출동과 대응으로 화재 발생 30여 분 만에 초진이 완료됐다.

이번 화재는 돼지 막사 화재 건으로 모든 27두, 자돈 60여두가 폐사했으며,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

이번 화재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순창소방서가 사전에 진행한 축사 출동 훈련 덕분이었다. 훈련을 통해 축사의 위치와 진입구 등을 미리 알고 있었던 소방대원들은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다.

/순창=박지현 기자



익산시 동신아파트 통장단, 성금 약 121만 원 기탁

익산시 영등1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신아파트 통장단이 성금 121만 5,000원을 기탁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유부열·문연숙·박윤순·기민정 통장은 지난 22일 동신아파트에서 '설 명절 맞이 이웃돕기 행사'를 진행했다. 통장들은 주민들에게 따뜻한 한방차를 대접하며 가래떡과 떡국떡을 판매해 발생한 수익금 121만 5,000원을 기탁했다.

유부열 통장은 "새해에 행복한 일이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이웃돕기 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오식 영등1동장은 "나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동신아파트 통장단에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시 어린이기획단, 세벳돈 27만원 기부...희망나눔 동참

김제시(시장 정서주)는 지난달 24일, 김제 김제사회복지관 사업 중 하나인 찾아가는 농촌 혁신복지관에서 설명절 행사(떡국잔치)중 어린이기획단이 받은 세벳돈 27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어린이기획단은 "우리 주변에 저와 동갑이지만 아픈 부모님이나 힘든 친구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 친구들이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말했다.

김희옥 김제부시장은 "어릴 때부터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더 큰 사랑을 나누는 어른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기부금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랑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부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긴급지원, 저소득주민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이원택 의원,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평가 및 선정, 5년간 총 4회 수상 쾌거



이원택 의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평가 및 선정하는 '2024년 국정감사 국민복상(우수) 수상'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3년 연속, 21대 국회를 포함해 5년간 총 4회의 국민복상 수상이란 쾌거를 달성했다. 국민복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고 온·오프라인으로 1천여명이 모니터해 온 26년 전통의 공신력 있는 상이다. 특히 이번 2024년 우수의원 선정은 모니터위원회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했고 정밀한 평가과정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어업 현실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 민생회복과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현장 밀착형 이슈 발굴은 물론 정부 농정에 대한 근본 지적 및 대안 제

시를 위해 힘을 쏟았다.

이 의원은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어업 현실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 민생회복과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주)대상 순창공장, 지역 아동복지에 2천만원 후원금 전달

'청정원 바자회 노사 공동 후원행사'서 후원금 전달, 취약계층 아동 가정 지원에 사용

대상(주) 순창공장(공장장 박동숙)과 초록우산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는 지난달 23일 순창군청에서 최영일 순창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청정원 바자회 노사 공동 후원행사'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해 12월 7일 열린 '제18회 청정원 바자회 노사 공동 후원행사'를 통해 마련된 2,0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아동 가정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바자회는 청정원 제품 판매를 비롯해 일일 찻집, 떡거리 장터, 놀이마당, 풍선 버블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동숙 대상(주) 순창공장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겨울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구미희 초록우산전북지역본부장은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면서 "순창군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지원을 추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한 뜻깊은 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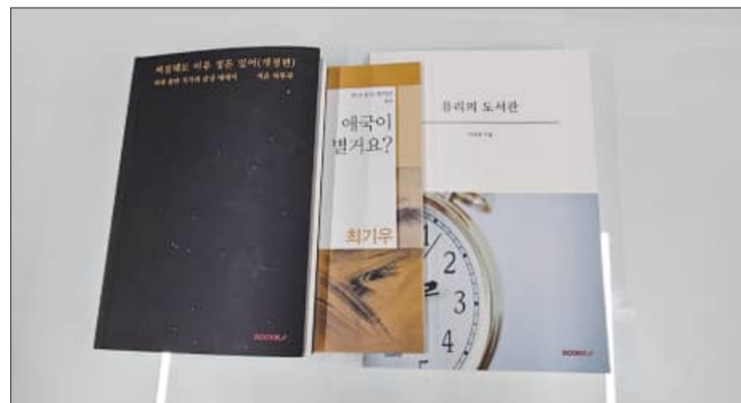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주) 순창공장과 초록

우산전북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순창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산도서관 입주작가들, 대회 입상 등 쾌거

글쓰기 특화도서관으로 운영중인 전주시 완산도서관 입주작가들이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활동 중인 완산도서관 입주작가들이 크고 작은 대회에서 입상하고, 새로운 책을 집필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며 글쓰기 특화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완산도서관은 전국 작가들을 대상으로 전문작가 12명과 시민작가 10명을 선발해 도서관 3층 자

작자 책 공간작가의 작가 집필실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5기 입주작가들 중 동화작가인 이경옥 작가는 지난해 8월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일컬어지는 한국 안데르센상 창작동화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작가는 재혼 가정을 소재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알아가는 성장동화 '진짜 가족 맞아요!'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명태 기자



완주 이서여성의용소방대, 어르신들에 선물 후원

완주군 이서면에서 화재예방과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의용소방대가 설 명절을 맞아 이서노인복지센터에 선물 20박스를 후원했다.

이날 후원한 명절 선물은 이서노인복지센터 직원들이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명절 인사와 함께 전해졌다.

손영란 이서여성의용소방대장은 "지역에서 활동하며 명절에도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뵈게 되면서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

에 후원하게 됐다"며 "작은 선물이지만 위로와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혜경 이서노인복지센터장은 "매년 명절을 맞아 뜻깊은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서노인복지센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며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힘쓰고 있다.

/완주=김명근 기자

남원 JB청년회, 중증장애인가구 시설 평화의집에 후원물품 나눔

남원 JB청년회는 지난달 23일 중증장애인가구 주시설을 평화의집을 방문해 설맞이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후원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후원물품은 라면, 생필품, 간식류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돼, 평화의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남원 JB청년회 회장 김태균은 "이번 나눔이 중증장애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중증장애인가구주시설 평화의집 원장 김종열은 "어려운 시기에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신 JB청년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후원물품은 장애인분들의 생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군산시지회, 2백만원 전달

지난달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군산시지회(지회장 채용석)는 설명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 2백만원을 군산시에 전달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군산시지회는 매년 회원들의 정성을 십시일반 모아 이웃돕기 성금으로 군산시에 기탁해 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마다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군산시지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가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고창군 성내면, 노영열 지회장 백미 10kg 30포 기탁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 노영열 지회장이 성내면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백미 10kg 30포를 기탁했다.

노영열 지회장은 매년 지속적으로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과 나눔활동에 힘쓰고 있다.

노영열 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누는 삶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성내면장은 "매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과 사랑의 온정을 나누시는 노영열 지회장님께 감사드리며 "기탁한 백미는 노인, 취약계층에게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겨울철 야외 활동시 안전수칙



기상청, 날씨앱 등으로 사전에 기상정보 파악하기



얇은 옷 여러벌을 겹쳐 입어체온유지, 보호 한다



보온및 방수 기능이 있는 장갑과, 신발을 착용한다



따뜻한물을 충분히 마신다



활동전 준비운동을 통해 움직이고 근육을 이완한다

〈一事一言〉



윤석열 내란 세력을 보는 종교의 세 얼굴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킨 지 50일이 훌쩍 지났다. 그때부터 '내란 불면증'을 앓지 않은 국민이 있을까.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되고 구속되고 수감되었지만, 내란 공범들과 동조 세력의 난동은 그치지 않고 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의 난동은 그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내란 세력은 명백한 범죄행위를 정치적 공방으로 전환시키려고 잔꾀를 부리고 있다. 내란 사태가 지속되면서 종교와 종교인의 세 가지 모습이 결국 드러났다. 악의 세력에 동참하는 종교인, 악의 세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싸우는 종교인, 악의 세력에 저항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종교인이다.

전광훈 목사는 16일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며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교인들에게 1인당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1월 19일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이 윤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것은 우리에게, 광화문에 모일 기회를 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27일 열린 광화문 연합예배를 반대하면 "마귀, 사탄, 바퀴벌레요, 이완용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던 손현보 목사만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했고,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선동 당했다"고 발언했다. '국민은 바보' '판사들은 개x기'

'MBC는 Mx신' 등 험한 욕설을 퍼부었다.

대형교회 목사들과 극우 개신교 세력이 전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와 비슷한 길을 걷는 듯하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축복하고, 편들고 있다. 대형교회 목사들과 극우 개신교 세력,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여 미국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아멘' '할렐루야' 외치며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윤석열 내란 세력과 한 패다. 1월 4일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구속'을 촉구하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로에서 며칠째 밤샘 농성을 하던 노동자, 2030 여성, 시민들에게 끈땀땀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화장실과 기도실을 개방하였다. 그 아름다운 행동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감사하고 있다. 응원봉을 든 수도회 신부의 뒤를 수십 명의 시민들이 줄지어 따르는 사진을 보고 나도 가슴이 뭉클하였다.

지난 12월 9일 시국기도회에서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신부는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빨 달린 머리 7개의 용'이 자리 잡은 곳을 용산이라 부른다"고 비유하며,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지0발광'에 해당한다고 일갈했다. 김용태 신부는 비상계엄을 국민과 양심적인 계엄군이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종교는 '인간의 삶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해준다고 말하는 김용태 신부는 가톨릭 세례를 받은 윤석열(암브로시오)이 앞으로 있을 긴 시간의 감옥살이

에서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깨닫기를 바란다.

1월 18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명진 스님은 "윤석열은 민족을 절멸의 위기로 처넣을 전쟁을 획책한 악질 범죄자예요. 극형이 마땅하죠. 더욱 기가 막힌 사건 정권 유지 수단으로 전쟁도 불사하는 윤석열과 주변 사람들, 자신을 소위 '보수'라고 칭하는 자들이요. 이중에서도 내란 수괴부에 대해서는 나중이라도 용서나 화합을 들먹이며 사면하지는 말을 꺼내지도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2023년 5월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에서 "네 이름, 윤석열!"이라고 사자후를 날렸던 명진 스님이다. 1월 9일 32개 개신교 단체들이 "윤석열 파면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그리스도인 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그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30여 명의 행동하는 지식인과 종교인으로 구성된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더 이상 멈추게 할 수 없다」 제하의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신속히 인용하고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하여 민주 정당의 본질을 저버린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고, 윤석열 독재정권에 동조해 온 반민주 세력과 범죄의 근간인 사법부를 공격한 폭도들을 엄히 단죄하라

고 요구했다.

윤석열 내란세력과 민주시민 사이에서 종교가 중립을 지킨다면, 그런 종교는 사실상 윤석열 내란 세력을 돕고 있는 것이다. 내란 세력을 구경만 하는 종교인도 마찬가지다. 내란 세력과 민주 시민 사이에서 중립은 없다. 종교는 중립이 아니라 약자와 정의로운 쪽을 편드는 것이다. 인간의 고통에 관심 많은 종교에 중립은 없다.

아주 소수의 종교인들이 악의 세력에 저항하고 있다. 대부분 종교인들이 중립이란 핑계로 사실상 윤석열 내란 세력을 돕고 있다. 만일 한국 종교들이 부처나 예수 말씀에 충실했다면, 윤석열 내란 세력에 저항하는 종교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자유우파" 이름의 '망상 공동체가 저지른 폭력과 그들이 부추기는 불관용은 관용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시민 작가 말에 나는 동의한다. 김상봉 교수 말처럼, 한국의 보수 세력은 역사에서 배운 것이 없는 듯하다. "이게 나라냐" 묻는 민주시민들에게 "우리가 나라다"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윤석열 내란 세력과 동조 세력에게 자비는 없다.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링크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최상목 권한대행, 특검 칼날이 두려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다시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같은 법안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결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벌써 일곱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로, 권한대행의 직분을 넘어 마치 '제왕적 대통령'처럼 군림하는 모습이다.

최대행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이미 구속 기소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특검법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추가적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윤석열이 구속됐다고 해서 사태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비상계엄 직후 지시된 여러 부처의 쪽지 문건 등 밝혀야 할 진실이 산적해 있다. 또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제동을 걸었던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윤석열이 기소됐으니 특검은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모순이다.

더욱이 최대행은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를 시도했을 때 대통령경호처의 방해로 방관하며 범죄주의를 훼손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키우고, 국민의 뜻과 거꾸

로 가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 관련자들에게 대한 단죄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흔들 내란 사태의 강을 건너 국격을 회복하고 국정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최대행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최대행의 이해상충 가능성이다. 그는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측에서 받은 '비상입법기구 지시 쪽지'와 관련해 직접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해관계를 가진 인물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하며 국정의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사유화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최대행의 행보는 국민 여론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 권한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다. 더구나 내란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권한대행이 할 일은 국민 통합과 국정 안정이지, 정치적 난을 자초하며 특검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다.

최상목 대행은 스스로의 역할을 망각하지 말라. 국민의 뜻을 외면한 거부권 남용은 명백한 잘못이며 국정 안정과 법치주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다. 최대행이 끝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최대행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내란 특검을 수용하라. 역사의 기록은 국민을 거스른 권력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재난고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필사본, 고본
-지정일 - 1984년 9월 20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출판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따뜻한 얼음 / 박남준

웃을 꺼 입듯 한 겹 또 한 겹
추위가 더할수록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것은
버들치며 송사리 품 안에 숨쉬는 것들을
따뜻하게 키우고 싶기 때문이다
철모르는 돌팔매로부터
겉 많은 물고기들을 두 눈 동그란 것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얼음이 맑고 반짝이는 것은
그 아래 작고 여린 것들이 푸른빛을 잃지 않고
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겨울 모진 것 그래도 견딜 만한 것은
제 몸의 온기란 온기 세상에 다 전하고
스스로 차디찬 얼음의 품이

되어버린 얼음이 있기 때문이다
쫄고 내몰린 것들을
껴안고 눈물지어온 이들은 알 것이다
햇살 아래 녹아내린
얼음의 투명한 눈물자위를
아 몸을 다 바쳐서 피워내는 사랑이라니
그 빛나는 것이라니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영광 출생. 전주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시인'지에 '할매는 꽃신 신고 사랑노래 부르다가'를 발표하며 등

단했다. 2003년 전주 모악산방을 떠나 하동 약양면 동매마을로 거처를 옮겼다. 전주시 예술가상과 거창 평화인권문학상, 천상병 시문학상

등을 받았다. '세상의 길가에 나무가 되어' '풀여치의 노래' 등의 시집과 '술술한 날의 여행' '작고 가벼워질 때까지' 등 산문집을 남겼다.

JBT 전북타임스는 독자여러분을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2025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구독신청 282-9600



2025임실방문의해, 천만관광명품도시 '이제 임실'



〈심 민 임실군수〉

"중시여일의 각오, 대한민국 홀리는 세계절 축제 도시 임실로"

심 민 임실군수는 "올해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고, 군정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라며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일관성을 지닌 행정을 통해 2025년 중시여일(終始如一)의 각오로 군정 주요 핵심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 군수는 "올해는 임실 방문의 해로서 전북특별자치도를 넘어 전국, 아니 세계에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지역 관광자원 홍보에 온 힘을 쏟겠다"며 "대한민국을 홀리는 공격적이고 전방위적인 홍보로 세계절 축제 도시 이제 임실의 시대를 널리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심 군수는 "농업지역으로서 농업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쓰고,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 정책에 힘쓰겠다"며 "특히 홀스타인 품종보다 원유 품질이 월등히 우수한 저지종 품종으로 개량, 기능성 속성 치즈와 고품질의 유제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차별화함으로써 임실치즈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남녀 사우나

시설을 갖춘 목욕탕과 로컬푸드 직매장, 영화관 등이 구비된 임실 정주활력 복합센터 건립에 힘쓰겠다"며 "특히 오수면 80세대, 관촌면 120세대의 아파트를 올해 착공하고, 임실을 120세대 임대 아파트도 내년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 군수는 "지난해 옥정호와 임실N치즈축제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절 축제로 888만명이 임실을 찾은 만큼, 임실 방문의 해인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모두가 지역관광자원 홍보에 온 힘을 쏟고, 전 국민이 한 번 이상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재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심 군수는 "관광 임실의 시대에 걸맞게 천만 관광 유치에 꼭 필요한 현안인 KTX 임실역 정차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 군수는 "지방 소멸의 시대를 극복하고, 소란스럽고 어려운 시기 손을 잡고 함께 극복하는데 제가 앞장서겠다"며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군민 행복을 위해서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 옥정호, 치즈테마파크, 성수산, 오수의견, 사선대 등 명품 관광벨트 천만관광 시대
- ▶ 함께하는 희망농업, 활력있는 지역경제, 복지·교육·문화 등 전 분야 행정력 집중
- ▶ 대한민국 3대 축제 임실N치즈축제, 산타축제 등 대한민국 유일 세계절 축제 도시
- ▶ 임실 정주활력 복합센터, 오수·관촌·임실읍 등 320세대 임대 아파트 착공
- ▶ 우수한 저지종, 기능성 속성치즈 고품질 유제품 생산 임실치즈 경쟁력 강화

.....
임실군이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일관성을 지닌 행정을 통해 2025년 중시여일(終始如一)의 각오로 군정 주요 핵심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심 민 군수는 신년 인사에서 "성장과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 2025년은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군도 더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6개월을 열심히 일했고, 남은 1년 6개월과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오로지 임실군과 군민만을 위해 혼신을 다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군은 올해 '임실 방문의 해'인 만큼 '이제 임실'이라는 대표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반드시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명품 관광벨트 구축...천만 관광 임실시대 실현 총력

임실군은 지난해 옥정호와 임실N치즈축제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절 축제로 888만명이 임실을 찾은 만큼, 임실 방문의 해인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임실군 생활 인구는 2018년에 498만 명에서 2023년 853만명, 2024년에는 888만명으로 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 온 2025 임실 방문의 해 추진과 함께 대외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임실여행 숙박비 할인과 특별한 임실 투어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투어, 찾아가는 방문의 해 홍보단 등을 운영하여, 누구나 찾고 싶고 와보고 싶은 임실을 알릴 예정이다.

2024년도 문화관광체육부 선정 대한민국 3대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인 임실N치즈축제에는 58만명이, 겨울 대표 축제인 산타축제에는 31만명이 찾아 흥행에 성공한 임실군은 옥정호 빛축제, 임실N페스티벌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하고 품성향 특색있는 세계절 축제를 준비할 계획이다.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하여 옥정호 관광호텔과 봉어섬과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5.2km 케이블카 등 민간개발을 포함한 옥정호 권역 관광개발도 착각 추진한다.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치즈아이랜드와 호텔형 숙소신축, 농촌테마공원 등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수면에 세계명절 테마랜드 조성사업 착공과 성수산 산티레포즈 시설 준공, 관촌 사선대 개발계획 구상 등 명품 관광벨트 구축사업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함께하는 희망농업...행복한 농업농촌 실현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2월 체결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 지역 다양화 및 확대에도 전념할 계획이다.

또한, 특화 작물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식품개발, 농작물 병해충 공동 방제와 수확 대행 작업단 운영 등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논 콩을 많이 심고, 가루 쌀 재배 단지를 육성하는 등 전략 작물 산업화 지원을 통해 쌀 적정 생산 유도와 쌀값 안정화에도 힘쓴다.

특히, 홀스타인 품종보다 원유 품질이 월등히 우수한 저지종 품종으로 개량, 기능성 속성치즈와 고품질의 유제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차별화함으로써 임실치즈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군은 현재 시행 중인 관내 학교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을 주 2회에서 3회로 늘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군 자체 아동수당 지원과 여자 어르신 이마용모 지원도 연 4대에서 6대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활력있는 지역 경제... 맞춤형 경제시책

민생 현안과 밀접한 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업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운암면 소재지에 조성 중인 한우 특화 거리 개장과 임실시장 음식특화상가를 올해 완공, 본격적 운영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임실·오수 제2농공단지 기업 유치 및 임주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남녀 사우나 시설을 갖춘 목욕탕과, 로컬푸드 직매장, 영화관 등이 구비된 임실 정주활력 복합센터와 오수면 80세대, 관촌면 120세대의 아파트를 올해 착공하고, 임실읍 120세대 임대 아파트도 내년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천만관광 시대를 위해 꼭 필요한 현안인 KTX 임실역 정차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사회 복지 안전망 확대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특색 있는 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출산 및 양육 정책 지원, 다문화가족과 사회취약계층 지원에도 세심하게 배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실·오수·관촌 풍수해 생활권 정비, 관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강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재난 재해 예방에 빈틈없이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품격있는 교육·문화...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군은 봉황인재학당의 수준 높은 수업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중학생 150명, 고등학생 50명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지사면 소재지에 단독주택 12가구로 구성된 농촌 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도 조성해 가족 단위 학생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모 선정되어 125억원이 지원되는 교육발전 특구사업도 총 3회 행사 지역인재 정주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관촌 옛 상월분교에 복합문화공간 조성, 예총회관에 문예담터 조성 등을 통해 문화예술을 활성화해 나간다.

아울러, 볼링장과 스포츠센터를 겸비한 국민체육센터, 탁구 피구 생활체육관, 야구장 조성을 통해 생체육 인프를 확충하고 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